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EBP 기반 환경교육과정 개발모형 연구

정유진(연세대학교)

서론

문제 발견 및 제기

EBP 기반 환경교육의 부재

사회복지를 포함한 대인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EBP(근거기반실천; evidence-based practice)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주도형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EBP를 기반하여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화소외계층 학습자의 문제

문화소외계층 학습자는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안정된 교육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소외계층 학습자가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론적 배경

환경교육의 방향

초기 환경교육은 자연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면 1970년부터는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하여 1990년대부터는 환경교육의 범위가 환경교육은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친환경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감성	지식	시스템 사고	환경 정의	행동과 실천

<표1> 환경교육 5단계

기존 EBP 연구 방향

기존 EBP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총 5단계로, (1)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제기->(2)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거 찾기->(3) 과학적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4) 적절한 개입 방법을 찾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기-> (5) 적용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어 왔다.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연구 목적

본 연구는 EBP 연구의 적극성이 부재한 현재에 현장 기반 연구를 토대로 문화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 사회환경교육모델을 구축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기존 환경교육 및 EBP 연구 방향을 반영하여 <표2>와 같이 연구 단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1-4단계까지 수행을 하고자 하며, 4단계에서 향후 5단계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구체화 및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범위 규정
2단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거 찾기 (1) 환경교육과 관련된 '썸트렌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 교육공학의 '간접적 수업' 교육모형
3단계	기존 교과서 분석 후 학년별 통합적 단원 설계 연구
4단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적절한 교육모형 개입방법 제시 및 평가 기준 수립
5단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교육 진행 후 적용된 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표2> 연구 단계

본론 1

연구 1단계

서론에서 명시된 <표2>에 따라 1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구체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교과목을 통해 향상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방법을 활용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 교육환경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실천적 기반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18년 기준 환경 과목 선택 학교는 전체 8.4%(470개교)이나 이 중 79%는 환경 전공 교사가 아닌 '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범위 규정: 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권자, 그 외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약자 중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배제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연구 2단계

1. 환경교육과 관련된 '썸트렌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 '환경교육'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환경교육 연관어 분석 결과 4위가 '프로그램', 8위가 '지역', 9위가 '시민', 11위가 '지구', 12위가 '사회', 13위가 '탄소', 14위가 '기후변화'가 나왔다. (조사기간: 2020.09.01~2021.8.31, 1년, 트위터 리트윗 제거) 이 결과를 토대로 대중적 관심사가 높은 연관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사회환경교육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연구 3,4단계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2. 교육공학의 '간접적 수업' 교육모형: '간접적 수업'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여 이전 생각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질문과 탐구를 사용하여 배우게 되는 내용을 평가하는 학습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교학문적, 학과 융합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다. 이를 환경교육에도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서로 다른 학습단계에 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간접적 수업'을 기반한 사회환경교육모델을 연구 3,4단계에서 구축한다.

본론 2

연구 3단계

1. 기존 교과서 분석: 시중에 나온 교과서는 <표3>과 같이 주목하였다.

학년	사회과, 도덕과, 환경교과서 종류
초 1,2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전한 생활
초 3-6	도덕, 사회
중등	사회1, 사회2, 사회과부도, 중학교 환경
고등	고등학교 환경, 인간과 환경, 생태와 환경, 친환경 농업, 환경 화학 기초

<표3> 기존 교과서 분석 표

2. 학년별 통합적 단원 설계 연구: <표1> 환경교육 5단계에 기반하여 학년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준	감성	지식	시스템 사고	환경 정의	행동과 실천
초 1,2	O				
초 3-6	O	O			
중등	O	O	O	O	O
고등	O	O	O	O	O

<표4> 환경교육 5단계 기반 학년 성취기준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에 의거한 세부적인 학년별 통합적 단원을 제시한다. 초 1의 경우 상반기 프로그램을 <표5>와 같이 통합적 단원을 설계하였다.

교과서 / 간접수업 법에 따른 통합적 수업 단계	문제 만들기	탐구 내용 구체화 및 탐구하기	탐구 결과 공유하기	하반기 프로그램 제시
안전한 생활 1단원 (2) 신나는 나들이	-	올바른 자연 탐구 방법 제시: 자연은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과 방법 제시	탐구 내용 구체화 및 탐구하기에 대한 발표 진행	안전한 생활 1 3단원 (2) 우리 모두 소중한 친구 연계
봄 1 2단원 도란도란 봄 동산	자연에 대한 인식 : 이전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공유	자연 탐구 : 계절의 변화 인식, 생물 탐구 방법 지식 습득		가을 1, 겨울 1 관련 단원 연계
여름 1 2단원 여름 나라				

<표5> 초 1,2 통합적 단원 설계

연구 4단계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적절한 교육모형 개입방법 제시: <표4>는 학기 수업과 병행하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방과후에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교육모형은 학년별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6개월 기준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2. 평가 기준 수립: 교육 대상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이므로 교육 전 교육 대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 성취도)의 일반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와 학교 성적을 통한 기초학력 수준 파악을 실시한다. RSES는 학년별 어휘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 교육 이후에는 (1) 학생 스스로의 진단평가와 (2) 교육 진행 교사/강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1) 학생 스스로의 진단평가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초 1-2는 '봄 1-1' 2단원 '도란도란 봄 동산'과 관련하여 봄이 찾아오면 자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와 '안전한 생활 1' 의 1단원 소단원 2 '신나는 나들이'와 3단원의 소단원 2 '우리 모두 소중한 친구'와 연관 지어 자연에 대한 어떤 관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를 배운다.
교육 전 환경에 대한 기존 생각을 평가할 수 있는 답변 항목을 제시한다. 교육 후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연 관찰 태도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여 교육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것을 비교하여 여름의 자연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2) 교육 진행 교사/강사의 평가는 교육 전과 동일하게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가 진행되고, 기초학력 수준의 경우에는 통합적 단원 설계에 연관된 교과목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결론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 중심에 사람과 더불어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의식을 기반한 현 사회의 문제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공동체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6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학업 지원 이외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롭게 접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게 된다.

논의 및 결론

연구 4단계를 기반으로 5단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실제 교육 진행 후 적용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향후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황성동(경북대학교), "근거기반실천 모형 개발과 그 효과성 검증",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사업(단독연구),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학교 사회 1의 경우,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박형준, 천재교육 구정화를, 사회 2의 경우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박형준, 천재교육 구정화, 미래엔을 참고하였다. *절판 등의 문제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참고하지 못했음을 명시한다.